

전국민문출판단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고취 주제 도서 발표회 거행



5월 15일,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요 행사로 진행된 '민족 문맥 이어가고 시대의 화려한 장 쓰기-전국 민족문출판단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고취 주제(정품) 도서 발표회'가 장춘농업박람회 3호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출판협회 민족출판업무위원회의 지도와 국가신강민족언어출판기지, 국가내몽골민족언어출판기지, 국가길림민족언어출판기지의 지지 아래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

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초대로 전국 20여개 민족문출판단위에서 25종 문자로 출판한 1,000여종의 정품 출판물을 선보였는데 그 규모는 역대 도서박람회, 도서전시회, 도서시장의 전례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의 전국민족문출판단위에는 민족 특색의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었다. 전시구 현장에는 다양한 민족문출판물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있었는데 고전의 현대적 해석부터 새시대 민족 발전의 생동한 기록

에 이르기까지 책들마다 심오한 민족문화 바탕을 수반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독자들은 전시구 앞에서 흥미진진하게 책들을 살펴보고 고유 매력을 발산하는 문화 정품에 푹 빠져들었다.

중국출판협회 민족출판사업위원회와 길림성당위 선전부의 관련 지도자들은 주제(정품) 도서 발표회에서 전국 민족문출판단위들이 단체로 전시회에 참가한 혁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민족출판사업의 발전에 대

한 아름다운 념원을 전했다. 그후 초청자들이 무대에 올라 전자 시작 장치를 공동으로 작동시키자 찬란한 빛과 그림자가 반짝이면서 민족문화의 보물을 담은 신간 도서들이 공식 발표되었다.

신간 도서 발표가 끝난 후 각 민족문출판단위들에서 길림성도서관과 연변주도서관에 민족문출판 도서들을 증정했다. 이 도서들은 여러 종류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풍부한 내용과 극히 높은 문화적 가치로 공공문화 서비스 자원을 보장시켜 민족문화의 전파와 계승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전국 민족문출판단위들이 단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민족문화성과의 집중적 전시일 뿐만 아니라 새시대 민족출판사업자들의 사명과 책임 실현에 대한 생동한 체현이다.

각 민족문출판단위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사업의 주선으로 날로 증가하는 인민들의 정신문화 수요에 맞춰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발굴, 정리, 출판을 깊이있게 연구하였다. 이들은 중화민족의 우수 문화에 끊임없는 영감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중 민족의 역량을 응집하여 민족문화의 번영 발전과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 최화 주중 류향휘 기자



‘등과로 AI 스마트 학습기’의 사용을 시범하고 있는 양국량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전국출판전시관에 들어서면 독특한 창의성, 혁신적이고 편리한 ‘인공지능(AI) 도서관’이 눈길을 끈다. 이번 박람회는 AI 기술이 전통적인 독서 경험을 뛰어넘어 보다 생동적이고 참여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문화교류와 창의력을 키우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AI 기술이 교육 형태를 재구성하는 오늘날 학습은 더 이상 ‘고정된 교실 + 종이교재’라는 전통적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연변대학출판사는 ‘등과로 AI 스터디룸’ 전경스마트 학습 솔루션을 동북도서교역박람회(3관)에서 선보여 기술이 부여하는 ‘학습혁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변대학출판사 양국량은 “등과로 AI 스마트 학습기는 K12 교육단계(소학교, 초중, 고중 단계)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학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보도를 제공한다. 전통 교육과 비교할 때 AI 학습 시스템은 AI와 교육을 결합하여 비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줄이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혁신적인 점이다.”라고 소개했다.

제공하였다.

그는 “이 기술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QR 코드(2D)를 대체하여 도서와 기술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였으며 책의 특정 페이지를 인식하여 내용과 관련된 무작위 3D 모델을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상호작용의 새 경험을 제공해 준다. 또한 AR 기술은 전통적인 2D 도서 인쇄의 한계를 벗어나 더 많은 세부 사항과 단계를 보여주며 학습의 재미와 깊이를 크게 향상시킨다.”고 전했다. 이외에 자동 번역, 실시간 음성 상호작용 등 AI 기술에 도입하여 언어 장벽과 상호작용의 난제를 극복하여 독자들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김은희는 “기술의 힘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목표는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장애가 없는 교육 도구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력이 점차 저하된 노인, 바쁜 일상의 청년층, 호기심으로 충만된 많은 젊은이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 모두가 기술을 통해 지식을 더 쉽게 얻고 독서 장애를 극복하며 편리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도서는 지식의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과학한도와 교육이 결합된 다리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와 뉴미디어(신미디어) 교육 시대에 과학기술은 교육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라고 감명깊게 전했다.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AI+ 도서’ 주제는 독서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으며 창의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자극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욱 혁신적인 ‘AI+ 도서’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김명준기자

길림성 문화산업 투자유치 추천대회 장춘서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중요 행사 중 하나인 ‘길림성 문화산업 투자유치 추천대회’가 15일 장춘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길림성당위 선전부, 길림성상무청의 지도 아래 길림성문화산업진흥회에서 주최했다. 현장에서 12개 중점 프로젝트가 체결되었는데 총 투자액은 16억 700만 원이고 계획 유치 자금은 4억 8,200만 원에 달한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 성에서는 이미

23개의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는데 총 예산 투자액이 24억 5,900만 원, 계획 유치 자금은 15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이날 현장에서 혁신연합체 설립 및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장영그룹, 김시미디어, 길림넷미디어, 길림애니메이션학원 등 주요 문화기업(단위)이 주도하여 AI 기술의 문화 분야 적용을 중심으로 6개의 문화산업 혁신연합체를 구성했다.

또한 김시미디어문화빅데이터부화

단지, 장춘정월영화산업부화단지, 백산시송화석문화창의산업단지, 연길 1978 문화창의단지, 매하구신업태경제산업단지 등 5개 문화산업단지에서 투자유치에 대해 소개했다. 길림동북아출판미디어그룹, 길림넷미디어, 길림애니메이션학원, 길림목욕성하(沐浴星河) 문화미디어유한회사, 교하시당위 선전부 등 5개 기업(단위) 책임자들이 각각 해당 ‘만메터 서점’, ‘XR 대형 공간 문화관광산업 응용’ 등 프로젝트를 추천했다.

길림성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다민족 역사 문화 유산과 홍색문화(红色文化)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웅장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깊이가 있는 인문정관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 성에는 5A급 관광지 9곳으로 동북 3성중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한다. 또한 국가급 문화산업 단지, 기지, 전역관광시범구, 문화관광소비 집중구 등이 전 성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 길림일보

전통과 혁신으로 이어가는 무형문화유산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4대 전시관 중 하나인 무형문화유산전시관이 국내외 문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 점 그리고 전통 예술, 민속 풍습, 전통 기술이 디지털로 재해석되는 등은 청년층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층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확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형문화유산전시구의 다채로운 문화유산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길파 치포’(吉派旗袍), 정교한 ‘만족 자수’(刺绣), 관동의 흙 예술을 집대성한 ‘흙인장’(泥人张), 선씨 가문의 비전이 담긴 ‘선씨(DNY) 중의학’, 당씨 가문의 독보적 기법 ‘당씨 근육 및 경락 조절 치료법’ 등 각 전시물은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며 관람객들을 감동시켰다.

이중 팽조소(93세) 어른신의 미카(微刻) 작품이 주목을 받았다. 중국 서예가협회 회원이자 장춘미카협회 주석인 그는 전통 미카 기술을 송화석연(松花石砚)에 혁신적으로 접목시켰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공예 기술을 넘어 서예·미카·미술이 융합된 예술 그 자체였다. 특히 송화석연에 새겨진 글씨는 육안으로는 쌀의 1/6 크기로 보이지만 확대경으로 보면 한 획 한 획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이는 수십년간의 서예 훈련에서 비롯된 그의 놀라운 기술력의 결과이다.

송화석연은 명대부터 솥돌(磨刀石)로 쓰일 정도로 단단한 석재이다. 팽



차간호 어피 제작기술 성급 전승인 서취

조소어르신은 이를 다루기 위해 량손으로 칼을 밀며 세기 작업을 하였고 특히 대규모 작업 시에는 망각(盲刻)으로 작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 <초혼연>(楚魂砚)은 3만여자를 수록한 장문으로 1년에 걸쳐 완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확대경으로 글자의 곡률만을 확인하며 망각의 시각에서 기술의 순수성과 집중도를 극치로 다졌다. 그는 은퇴한 후 12년간 집중적으로 송화석연을 창작했다. 행사장에 전시된 20여점의 작품은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매 조각마다 자연스러운 선 조정과 문화 상징성이 담겨 있다.

팽조소예술관 해설원 소소영은 “과

거 황제와 지식인층의 전용이었던 송화석연은 ‘고상한 예술’의 상징이었으나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려 지금은 일반인들도 ‘소중함 전통’을 가정의 작은 소품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중국 고대 문화의 대중화 전달과 무형문화유산의 혁신적 활용을 이룰 것”이라며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인 ‘차간호 어피(鱼皮) 공예’ 역시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피를 활용한 판화, 악세서리, DIY 제작 등 세가지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특히 ‘어약룡문’(鱼跃龙门)과 ‘복록수희’(福禄寿喜)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차간호 특산 잉어의 가죽을 가공해 제작된 이 작품들은 장중한 사슴 문양과 차간호의 어업 문화를 조화롭게 결합했다. 대형 벽걸이 작품부터 악세서리까지 다양한 규모로 제작된 작품들은 전시장내의 조명에 의해 그 섬세한 질감이 더 두드러졌다.

이 작품들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피를 분리한 후 1주일 이상 숙성시켜 탄력을 높인 뒤 전통 자수 기법과 립체 조형 기술을 적용했다. “이 작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장인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간호 어피 제작기술의 성급 전승인 서취는 이번에 전시된 청색 어피 작품 <인어공주>는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가급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거 민간 장인들 사이에서 전승되던 이 기술은 현재 학교교육 시스템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어피 공예를 직접 배우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 역시 ‘교실 밖에서의 전통문화 교육’ 확산을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전시물을 넘어 ‘살아있는 문화’로 재탄생되었다. 이 소중한 전통이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세세대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김명준기자

한권의 책으로 보는 길림 변경사

제2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길림 변경 인문지리 수호 기록(纪实)’ 주제 전시구에서는 <수호>(守望)라는 책을 중심으로 길림의 변경 역사, 문화 및 자연경관을 ‘서관’(书卷) 모양의 전시장으로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길림의 령토 보호사(守护史)와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전시장에는 19세기 청나라 관료이자 민족영웅인 오대징이 세운, ‘이 기둥은 세우기는 해도 이동해서는 안된다’(此柱可立不可移)는 구리기둥의 원형과 복원 과정을 시각 자료와 모델로 전시하였다. 이 구리기둥은 중국-로씨야 경계 조정 당시 길림의 국토를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국경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길림을 따라 이어지는 G331 연선을 ‘가장 아름다운 변경 풍경선’으로 선보이며 연선의 다원 문화를 전시했다.

통역매문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왕위는 “실제로 G331 연선에서 표현되는 ‘정체로움과 신비로움’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번 전시 주제는 ‘흥번부민’(兴边富民)이다. 우리 성 변경 안정 강화 정책을 통해 G331 연선의 문화관광을 유도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변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이외, 전시관에서는 구리기둥과 토자패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굿즈(文创产品)를 판매해 관람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는 길림의 변경사를 ‘읽을 수 있는 전시’로 재구성되며 관람객들에게 시각과 지성의 조화를 느끼고 문화와 역사의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김명준기자